

화학제품 치솟고 석유제품 꺾이고

한국은행, 중간재 물가 하락세 ... 에틸렌 및 M-X 구매가격은 올라

국제유가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원재료 및 중간재 물가 상승률이 3개월만에 하락했다.

한국은행에 따르면, 2003년 9월 원재료 및 중간재 물가는 2002년 9월보다는 1.4% 상승했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0.4% 하락했다.

원재료 및 중간재 물가가 하락한 것은 3개월만에 처음으로 중간재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 도입 가격이 전월대비 4.4%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.

중간재는 수요부진 및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자부품, 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, 일반기계 및 장비 등이 내렸으나 원재료 가격인상 및 세계 경기회복에 대한 수요증가 기대로 화학제품, 금속1차제품 등이 올라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0.3% 상승했다.

석유제품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나프타 -7.6%, 프로판가스 -6.4%, 벙커C유 -5.6%, 부탄가스 -2.9% 등으로 내려 전월대비 0.1% 하락했다.

화학제품은 중국 등으로부터의 해외수요 증가로 벤젠 14.0%, 에틸렌 12.0%, M-X(Mixed-Xylene) 11.1%, SM(Styrene Monomer) 5.4%, 자일렌 4.4% 등으로 오르면서 전월대비 1.7% 상승했다.

중간재 물가 등락률(2003.9)

(단위: %)

구분	등락률	주요 품목
석유제품	▽0.1	나프타(-7.6), 벙커C유(-5.6), 프로판가스(-6.4), 부탄가스(-2.9)
화학제품	1.7	에틸렌(12.0), M-X(11.1), Polyester섬유(6.3), 벤젠(14.0), 자일렌(4.4), SM(5.4), 향생물질제제(-4.1)
금속1차제품	0.9	금괴(3.7), 후판(30.7), 니켈(5.3), 스테인리스광폭대강(4.4), 알루미늄(-3.9)
일반기계/장비	▽0.2	컴퓨터부품(-1.0), 보조기억장치(-1.0) 광디스크드라이브(-4.4), 밸브(-1.0)
전자부품/영상/음향/통신장비	▽0.8	산업용브라운관(-2.1), 세라믹축전기(-4.3), 편향코일(-4.3), 리드프레임(-3.3), 액정표시장치(-1.6)

† 전월대비

한편, 금속1차제품은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전망 기대로 금괴, 니켈 등이 오르고 고철 가격상승 및 조선업 호황으로 후판, 스테인리스광폭대강 등이 올라 전월대비 0.9% 상승한 반면, 일반기계 및 장비는 수요부진과 가격경쟁 격화 영향으로 광디스크드라이브, 컴퓨터부품 등이 전월대비 0.2% 하락했다.

또 전자부품, 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는 수요부진 및 환율하락 영향으로 산업용브라운관, 세라믹축전기, 편향코일 등이 0.8% 하락했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10/22>